

키리토씨와의 대담²⁾

저는 압테라만 키리토라고 합니다. 저는 모로코인으로 라바트 Rabat 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교육부 산하로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하기 위해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내는 모로코의 교육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온 것은 이번이 네번째 입니다.

저는 모로코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불어를 배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과학을 공부했고, 이과계(실험과학) 바칼로레아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나서 저는 라바트의 고등사범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했고, 계속 라바트에 머물면서 1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 저는 시청각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2년간 더 수학(修學)했으며, 그리하여 영화와 교육 관련 시청각에서 연출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저는 법학 공부를 하였고 라바트의 사회-법학 대학 Faculté des Sciences Juridiques et Sociales에서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1973년 아랍어와 정치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제 모국어는 아랍어입니다. 따라서 저의 초등, 중등 학업은 아랍권 내의 사립 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아랍어가 불어보다 더욱 현재적이지요. 하지만 매우 명확한 이유들로 인해, 특히 고등학교 과정부터는 불어의 필요성을 참작하여 수학, 물리학, 화학, 자연과학 등의 과목에서 불어로 된 저작들에 더욱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모로코에서 불어를 배운 셈입니다. 저의 현지 언어는 아랍어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가정, 거리, 심지어 사무실과, 일반 관공서에서도 아랍어가 쓰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모로코에서 점점 덜 사용되기는 하지만 불어로도 말을 합니다. 우리는 프랑스인들이 떠나고 문과의 학과들 중의 일부가 아랍화됨으로써, 또 최근에는 이공계

2) Abderrhamane Kilito씨는 모로코인으로 모로코 교육방송프로그램 제작 담당자이다.

학과들이 아랍화됨으로써 불어 언어 교육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연구 분야, 즉 교육 방송의 제작, 연출 분야에서 우리 연구소는 학생들의 지식을 확고히 하기 위한 일련의 불어 교육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이 방송들은 불어 교육의 국가적 기준을 마련하게 하였으며, 얼마 전에 잃어버린 불어 어학 교육의 쇠신을, 다시 말해 그것을 공고화하여 제 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랍어를 사용하며 아랍권의 여러 형제국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아랍계에 속합니다. 모로코의 상황은 매우 특수합니다. 우리는 아랍권, 회교권, 아프리카권의 나라입니다. 아랍권의 형제들과 의사소통을 하려면 우리는 아랍어를 사용해야 하고, 그것은 모국어이며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진정한 재산입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형제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불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불어는 모로코에서 아랍어와 외국어들의 교육 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개최한 세미나 이후 공식적으로 제1외국어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랍어는 모로코에서 국가 공식언어, 의사소통의 언어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차원에서, 특히 이공계 학과들의 교육에 있어서 불어는 모로코의 대외 개방에 필수불가결한 언어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모로코에서 이중주의를, 건축상의 이중주의와 문화적 이중주의를 겪고 있습니다. 아랍계에, 아랍-회교계에 속하면서도, 어쨌든 우리는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불어는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에 해당됩니다. 외부 세계로 열린 언어인 것이지요. 제가 외부 세계라고 말할 때는 무엇보다도 유럽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로코의 지리적 상황을 확실히 알고 있을 겁니다. 모로코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고 언제나 여러 문명들이 만나는 한 지점으로서, 특히 유럽에 대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유럽과의 거리는 12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불어로 의사소통을 하더라도, 이것이 아랍어로 하는 우리의 연구를 심화시키고, 아랍의 국가들과 교류를 하고 아랍어로 출판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어를 강화하는 것은 아랍어를 강화하는 데, 그리고 유럽과 아메리카, 아시아에 아랍어의 전파를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줍

니다.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모로코의 국왕폐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국왕폐하는 다른 민족들과의 의사 소통과 개방의 수단으로서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무역이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국왕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문맹자란 단 하나의 언어 만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겨냥하는 지를 아시겠지요. 두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회교 국가에서 살면서 불어와 영어를 말하는 시민으로 키운다면, 우리의 난관과 선택에 정면대결할 수 있는 무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에 불어권과 그것의 세계로의 확산에 대한 저의 생각을 표현하고 저의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또한 아랍화에 대한 저의 관점을 표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원 윤수 교수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자 역>